

W이론의 구축에 대한 제언

이 광 석

한국원자력연구소

W이론이 발표 이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W이론은 아직 뚜렷한 형체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W이론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다. W이론은 이제까지 발표된 X, Y, 또는 Z이론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우리의 이론을 가리킨다. 이들 이론을 다음 표와 같이 간단한 개념틀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W이론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진다.

구조성 사회성	구조적 (structured)	비구조적 (unstructured)
개인적	X이론: 통제(control)	Y이론: 혁신(innovation)
집단적	Z이론: 개선(kaizen)	W이론: 신바람

W이론의 핵심은 '신바람'이다. 여기서 '신바람'이란 외국 사람들의 정서와는 다른, 한국 사람이면 한번씩은 느끼고 체험한 어떤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연 '신바람'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다.

본고에서는 조직 속에서의 '신바람'을 조직의 '氣'라고 정의한다. '氣'는 이미 한의학에서 인체에 적용하여 왔다. '신바람'을 '氣'라고 정의하면, 인체에서 '氣'의 흐름을 조절해 주는 '침술' 개념을 조직 내에서 '신바람'을 일으키고 유지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침술'이 매력을 갖는 이유는, 첫째, 큰 수술을 하지 않고 간단히 침을 놓아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점, 둘째, 병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아 해결한다는 점 등이다.

본 논문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W이론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여는 하나의 씨앗 노릇을 하고자 한다. 아직 '氣'나 '침술' 개념이 소위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체험해 왔고 친숙했던 것들로부터 우리의 이론을 만들자는데 본 논문의 취지가 있다.